

공동체 소식

성모성월 안내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5월을 성모성월로 지내면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풍요로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지난 1965년에 발표한 '성모성월'에 관한 교서에서 "교회 공동체와 개인, 가정 공동체는 성모성월에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과 찬미를 통해 마리아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모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치를 이루고 평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늘나라에 불러올라간 성모님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뵙기를 염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의 삶을 두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1항)인 교회의 전형(典型)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본당 야외미사 안내

일시 : 5월 12일(일) 11시 미사 시작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준비 : 개인 미사도구, 걷기 편한 신발과 복장 준비

간단한 Mother's Day 행사와 점심 식 후 Shelter #8으로 이동 하여 Hiking Trail 견습니다.

우천시 행사 취소되며 본당에서 미사가 있습니다. 행사 취소시 각 구역장 통해 전달합니다.

구역모임 안내

11일(토) 오후 7시 1구역 김화년 요안나 가정

10558 Bradshaw st, OP, KS

평협회 안내

15일(수) 저녁미사 후 나자렛관

주일학교 교리 안내

주일 오전 10시-10시 30분 나자렛관에서 교리 교육있습니다. 10시 30분 이후 성당으로 이동하여 주일 미사 준비에 함께 합니다.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26가정)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130	512	175	132
차 주	55	212	174	244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시연(엘리사벳)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차 주	박태주(로마노)	감영진(라파엘) 한준희(라파엘라)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김정원(안젤라) 김정훈(로베르도)
차 주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헌금 봉사자

금 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차 주	김태중(예레미아), 강승호(아오스딩)

애찬 봉사자

금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행사: 야외미사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3주일이며 생명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음의 빛을 밝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성사를 거행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 뵙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림 묵상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17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27ㄴ-32.40ㄴ-41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화 답 송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 2 독 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5,11-14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9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생명의 말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사도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티베리아스 호숫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후 제자들은 모두 낙담하여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섭고 떨렸으며 마음은 허탈감과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도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날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물을 치자 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아침 준비를 해놓고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하지만, 주님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슬퍼져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양들을 돌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부활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인간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결국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 말씀으로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고 충실히 따르는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불신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주님께서 마련하신 천상의 식사로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교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한번은 입으로 대답했고
다음은 머리로 대답했고
마지막은 마음으로 대답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17)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신앙의 시작

부족하지만 제 신앙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망설임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제 신앙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드리며 용기를 내봅니다.

어린 시절 신앙에 대해 생각하며 떠올리다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은 어땠나요?’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닐 텐데 이상할 만큼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제 신앙의 시작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부모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저는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세례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지금과 다르게(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산만하고 장난을 좋아하던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성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차분히 앉아 기도를 하고, 떠들거나 장난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지, 부모님은 아직도 어린 시절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모습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폭발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체를 모시고 들어오시면 그렇게 귀속말로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성체는 어떤 맛이야? 성체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 왜 안 씹고 오물오물하는 거야? 아껴서 먹는 거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준비가 되어야 모실 수 있단다. 세례를 받고 나면 너도 모실 수 있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첫영성체 수업이 시작돼서 저는 그 다음 해가 되어서야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영성체 수업을 하는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성체 영하는 연습을 한다면 신부님께서 그 당시에 유명하던 계란 과자로 연습을 시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과자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어린 마음에 ‘아. 성체도 그 과자처럼 너무 맛있는 것이라서 아껴먹느라 입에 넣고 녹여 먹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성체를 모시고 싶어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순수한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나 혼자만 중요하고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첫영성체 교리를 들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 남몰래 성호경을 그으면서 첫영성체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곽윤기 스테파노 | 쇼트트랙선수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원회진 레아